

중산층 측정 및 추이 분석

- 소득 중심으로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국내연구 현황	3
제3장 중산층 측정 및 추이 분석	7
제1절 중위소득계층 측정 및 추이 분석	7
제2절 Wolfson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13
제4장 Wolfson지수와 소득분포 비교	16
제1절 Gini계수 추이 분석	16
제2절 기타 소득분포 추이 분석	18
제3절 Wolfson지수와 Gini계수 비교	19
제5장 결론	21
참고문헌	23
부록	24

표 차례

<표1> 전체가구기준 소득계층별 인구비율	9
<표2> 전체가구기준 상대적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소득점유율	9
<표3> 전체가구기준 절대적 중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12
<표4> 전체가구기준 중위소득계층 인구비율과 Wolfson지수 추이	14
<표5> 국가별 중위소득계층 비율 및 Wolfson지수	15
<표6> 전체가구기준 Gini계수	16
<표7> 전체가구기준 소득불평등도 관련 지표별 추이	19
<표8> 전체가구기준 Wolfson지수와 Gini계수	19

그림 차례

<그림1>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중위소득계층 인구비율 추이	10
<그림2>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상대적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소득점유율	11
<그림3>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 중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12
<그림4> 로렌츠곡선에서 Wolfson지수	13
<그림5>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Wolfson 지수 추이	14
<그림6>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지니계수 추이	17
<그림7> OECD 국가별 Gini계수 (2010년 기준)	18
<그림8>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Wolfson지수와 Gini계수 추이	20



중산층 측정 및 추이 분석

- 소득 중심으로 -

박소현 · 안영민 · 정규승

제1장 서론

원래 중산층은 사회의 리더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산층의 역할은 중요하다. 만일 사회에 부유층과 빈곤층 두 계급만 존재한다면 이들 계층사이 갈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즉, 부유층과 빈곤층 두 계급만 존재하는 사회보다 중산층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중산층은 이들 두 계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구매력을 가진 소비계층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완화되는 등 중산층은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해가면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 차이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중산층 감소라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산층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한다.

위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설명했지만 실제로 중산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의식, 자산, 학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없고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며 이에 따라 중산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연구과정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 감소현상 및 원인에 대한 연구¹⁾는 외환 위기를 경험하면서 2000년 초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연구에 사용하는 통계자료와 자료 처리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했다. 이는 과거에 통계청 가계동향의 소득 자료가 근로자 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체 가구를 대표하지 못했으며, 2008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OECD방법을 준용하여 전체가구에 대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한데 기인한다. OECD방법의 주요 특징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²⁾으로 전환하는데 균등화³⁾ 처리를 하며 소득분배지표 작성대상 소득기준을 시장소득기준⁴⁾과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존 연구를 보면 총소득 개념에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경우도 있는 것처럼 연구자에 따라 소득개념과 해당자료 및 자료처리방법이 다양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중산층이 감소하여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공통의 연구결과⁵⁾는 얻었지만, 양극화 정도나 시계열 추세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들을 얻었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의 이런 문제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작성 방법에 따라 자료처리를 한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산층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중산층을 측정하는 지표로 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 50%~150%의 인구비율뿐만 아니라 Wolfson지수를 추계하여 중산층 추이를 분석하였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Gini계수와 Wolfson지수와 추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Gini계수 이외 소득불평등도 지표로 사용하는 Atkinson, Theil, SCV, MLD 등에 대한 추계도 시도하였다.

-
- 1) 우리나라 주요연구내용은 중산층 감소로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소득이 양극화되었는지, 그리고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의 추이가 동일한지와 관련이 있다.
 - 2) 실제로 소득이 없는 주부, 노인, 아이 등도 해당 가구의 소득을 공평하게 부여받아 개인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 3) OECD방식의 균등화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할 때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비교를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가 아니라 $\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기준 지표들을 많이 사용하며, 시장소득기준과 처분가능소득기준 차이를 통해 정부 분배정책의 개선효과를 분석한다.
 - 5) 외환위기는 강력한 외부 충격이기 때문에 통계자료, 자료처리방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일수 있다.



제2장 국내연구 현황

국내에서 중산층과 관련된 연구들의 주요목적은 1997년 외환위기·전후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였는지, 따라서 소득계층이 하위층과 상위층으로 양극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 연도별 Wolfson지수와 ER지수⁶⁾를 추정하여 이들 양극화지수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 추세가 어떤 모습인지 추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추계한 Wolfson지수와 ER지수를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계수와 추이 비교를 통해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의 통계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노동패널자료가 사용된 이유는 과거에 통계청의 가계동향이 1인 가구 및 비도시 거주 가구가 조사대상이 아니었고 소득도 근로소득만 발표할 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 대한 대표성이 낮은데 기인한다.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하여도 연구자에 따라 명목소득자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소비자물가로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소득자료를 이용하기도 하며, 연구대상 소득의 범위와 균등화 여부 또는 균등화 방법 등도 다양하였다.

이정우·이성림(2001)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우경제연구소의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중산층의 비율을 추정하였다.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80%~125%, 66.7%~133.3%, 50%~150%, 50%~200%의 4가지 정의를 사용하였고 추계 결과 중산층으로 어떤 정의를 사용하던 1998년에 중산층의 규모가 전년대비 5%p 또는 그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즉 1년만에 외환위기가 중산층에 타격을 가하여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양극화하였는데 상류층으로의 상승보다 하류층으로의 하락이 조금 더 많았다.

최희갑(2002)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를 Wolfson지수와 ER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있어서 이들 지수와 Gini계수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가

6) ER지수란 일련의 특성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양극화되었다고 정의하고, 동일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동질성이 강화되거나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소외감이 커지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가정하에 도출한 양극화함수를 기초로 ER지수를 추계하여 그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한다.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1982년부터 2001년까지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Wolfson지수를 추정된 결과 외환위기 발생으로 1997년 0.2568이던 Wolfson 지수는 1998년 0.2822로 상승하였고 1999년에도 계속 상승하다 2000년에 약간 감소, 2001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희갑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득 양극화는 연간자료로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다고 결론내리기 어렵지만, 분기 자료로 분석하면 소득양극화가 199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위기로 강화된 것이고 이정우·이성립(2001)의 연구에서도 1994년 내지 1995년에 이미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Gini계수와 이들 양극화지수와의 추세를 비교한 결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민승규 외(2006)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하고 최희갑과 마찬가지로 Wolfson지수와 ER지수를 추계하였고 소득양극화 심화원인을 제시하였다. 1982년부터 2005년까지 가계동향의 소득 10분위별 도시근로자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높은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에 기인하여 1984년부터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의 비중은 축소되고 하위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1997년 이후 8년간 중산층은 5.3% 감소한 반면에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하여 중산층의 감소가 하위층의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정우, 최희갑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Wolfson지수와 ER지수 추계결과에 의하면 1993년에 Wolfson지수와 ER지수는 각각 0.25와 0.018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199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다 1997년에 감소하고 1998년에 Wolfson지수는 전년대비 7.7%, ER지수는 10.5%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일시적으로 개선되던 지수들은 ER지수는 2002년부터 Wolfson지수는 2003년부터 다시 상승추세를 보여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심화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소득양극화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도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은 영국에 근접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2003년 이후 소득양극화(ER지수 기준)는 소득불균등(Gini계수 기준)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산층의 복원정책이 분배구조 개선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성(2006)은 가계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05년까지 Gini계수와 소득 양극화지수로서 Wolfson지수 및 ER지수를 추계하였는데, 두 양극화지수가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것을 보아 외환위기가 소득분배 양극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했다. Gini계수와 두 양극화지수 시계열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아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이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될 경우 함께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경준(2007)은 1996년과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1982년부터 2005년까지의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하여 Gini계수, Theil지수, Wolfson지수 및 ER지수를 추계하였는데 외환위기 전후로 소득불평등도지수와 양극화지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소득불평등도지수와 양극화지수의 변화 폭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는 외환위기 전후에 우리나라 소득분포 변화는 어느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집락화 현상을 동반하여 변화한 것이 아니라 소득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지수와 양극화지수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남상호 외(2008)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가계동향의 소득자료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 Wolfson지수와 Gini계수를 추계하여 소득불평등도와 소득양극화를 비교하였다.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후 전년대비 악화, 개선을 반복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나 소비지출로 추계한 Gini계수는 외환위기로 심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개선 또는 불변상태를 유지하며 Wolfson지수도 변화가 거의 없다는 분석결과를 얻어 소득으로 측정된 양극화 및 불평등도와 소비지출로 측정된 양극화 및 불평등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김용기 외(2010)는 중산층을 중위가구소득의 50%~150%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50%~75%, 75%~125%, 125%~150%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가계동향 조사의 2인 이상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균등화처리하지 않고 가구단위 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 및 세분한 중산층의 가구비율과 소득비중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60.4%에서 55.5%로 4.9%p 감소하였고, 소득비중도 54.0%에서 48.1%로 5.9%p 하락하였다. 핵심중산층인 75%~125%에 해당하는 가구비중은 33.5%에서 30.0%로 3.4%p 하락하였고 소득비중은 30.1%에서 26.1%로 4.0%p 하락하여 기타 중산층(중위소득 50%~75%, 125%~150%)보다 가구비중이나 소득비중이 모두 더 많이 하락했음을 발견하였다. 국제비교 결과 2006년 처분가능소득기준 핵심중산층의 비중이 OECD 21개국의 평균인 34.7%보다 낮은 31.3%로 16위이며 처분가능소득기준 중위소득계층(50%~150%)의 비중은 58.9%로 여전히 OECD에서 17위에 속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이 두텁지 못하다고 했다. 또한 요소소득기준 핵심중산층 비중과 처분가능소득기준 핵심중산층 비중 차이가 우리나라는 6.9%p인 반면에 북유럽 4개국은 평균 27.6%p로 중산층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소득이전 역할이 적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계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비중이므로 일류대학 출신 등 생산성과 무관한 구조적 근로소득격차 해소가 중산층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제안한다.

강성진 외(2010)는 중산층을 가구당 소득의 중위소득 50%~150%로 정의하고 한국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중산층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은 1997년 49%에서 1999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하락과 증가의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2005년에 가장 높은 54.07%라고 하였다. 외환위기로 1998년부터 중산층이 감소하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강성진 외의 연구는 중산층이 2000년에 감소하는데 그 원인으로 외환위기가 상위층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의 비중이 감소한데 기인한다고 했다.

이들 기존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강성진 외를 제외하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연구결과를 공통적으로 얻었지만, 소득양극화 변동정도와 추세 등은 연구자에 따라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이정우, 최희갑, 민승규 외는 우리나라 소득양극화가 1993년 또는 1994년에 시작했다는 공통의 연구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유경준과 신동균의 경우 유경준은 소득양극화지수와 소득불평등도지수의 변동정도가 유사하다고 하지만 신동균은 1997년에 비해 2004년에 양극화지수는 2.4배 증가했지만 Gini계수는 완만하게 증가했다는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연구내용은 초기 이정우와 같이 중산층의 인구비율 추정에서 시작하여 소득양극화의 원인분석,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와의 관계분석, 더 나아가 소비지출의 양극화와 불평도 분석에까지 연구내용도 다양해졌다.

제3장 중산층 측정 및 추이 분석



제1절 중위소득계층⁷⁾ 측정 및 추이 분석

1. 중위소득계층 측정 방법

중위소득계층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상대적 기준을 이용하여 정의하는 방법과 절대적 기준을 이용하여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상대적 기준으로 정의하는 방법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에 속하면 중위소득계층이라고 부르는 일정비율접근법과 특정연도의 어떤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을 중위소득계층이라고 정하고 다른 비교연도의 중위소득계층을 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연도와 비교연도 사이의 물가변동을 고려하는 구간환가방법이 있다. 절대적 기준의 중위소득계층이란 전체 인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5등분하였을 때 중간의 3개 소득분위에 속하는 인구를 중위소득계층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서 중위소득계층의 규모는 항상 60%로 고정되어 있는 단점이 있으나 이들의 소득 점유율 변동은 파악할 수 있다 (강성진 외, 2010).

본고에서는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서 사용하는 전체가구기준⁸⁾ 자료와 전체가구기준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로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1990년부터 시계열이 있는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⁹⁾ 자료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만들어서 중위소득계층 추이 분석에 사용했으며 물가변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7) 본고는 소득을 중심으로 중산층 추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제3절부터는 이를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중위 소득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8) 전체가구기준은 가계동향 조사자료와 농가경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는데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1인 가구 포함)를 의미한다(외국인가구, 집단시설가구 등 일부 가구는 제외).

9)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은 가계동향 조사자료 중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 자료만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2. 상대적 중위소득계층 추이 분석

가. 전체가구

일정비율접근법으로 중위소득계층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중위소득계층이라고 정의하며 우리나라도 매년 통계청에서 이들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인구비율을 추정, 발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개인별 소득을 최하위소득부터 최상위소득까지 소득 순위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중위소득)의 50%~150% 사이에 속하는 사람들을 중위소득계층이라고 부른다. 2012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월평균 중위소득은 177만원이므로 본인의 2012년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88.5만원에서 265.5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중위소득계층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중위소득계층에 속하는 인구비율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64.6%에서 세계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63.1%까지 감소하다 2010년 64.2%로 다시 증가하여 2012년 65.0%까지 상승하였다.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중위소득계층에서 이탈한 개인들의 2/3는 하위소득계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측되며 2009년 이후 2012년 사이에 중위소득계층으로 진입한 개인들의 2/3는 상위소득계층으로부터 이전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중위소득계층을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할 경우 그 구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를 하위중위소득계층(중위소득의 50%~75%), 핵심중위소득계층(75%~125%), 상위중위소득계층(125%~150%)로 세분화기도 한다. 세분결과 <표1>과 같이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하위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은 15.5%~16.5%이고, 핵심중위소득계층의 비율은 35.1%~36.8%이며, 상위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은 11.7%~12.3%로 상위중위소득계층의 변동이 가장 적고 핵심중위소득계층의 변동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구간이 동일하게 25%이지만 하위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이 상위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보다 더 크며, 하위중위소득계층 비율과 상위중위소득계층 비율의 합보다 핵심중위소득계층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pm 25\%$ 구간에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전체가구기준 소득계층별 인구비율

(단위 :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위소득 50% 미만	14.3	14.8	15.2	15.3	14.9	15.2	14.6
중위소득 50%~150%	64.6	63.9	63.1	63.1	64.2	64.0	65.0
50%~75%	16.5	16.2	15.6	16.2	15.8	15.5	16.1
75%~125%	35.9	35.6	35.8	35.1	36.3	36.8	36.6
125%~150%	12.3	12.1	11.7	11.8	12.1	11.7	12.3
중위소득 150% 이상	21.0	21.3	21.7	21.6	20.9	20.8	20.3

〈표1〉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계층별 인구는 핵심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가장 많으며, 상위소득계층(중위소득 150%이상)의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하위 중위소득계층(중위소득의 50%~75%), 하위소득계층, 상위중위소득계층의 순서로 상위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계층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은 〈표2〉와 같이 전체가구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55.0%~58.0%로 인구비율 63.1%~65.0%보다 낮지만 인구비율 변동과 소득점유율 변동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전체가구기준 상대적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소득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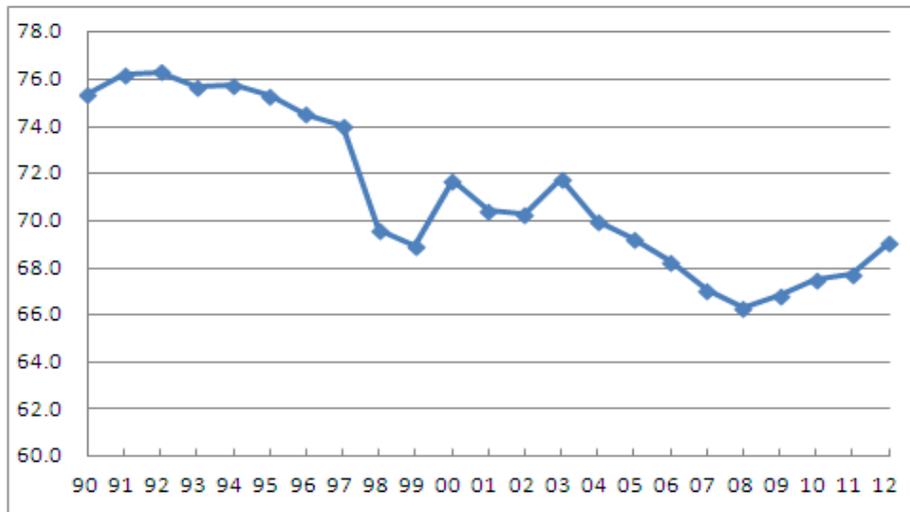
(단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구비율	64.6	63.9	63.1	63.1	64.2	64.0	65.0
소득점유율	56.9	55.9	55.0	55.4	56.7	56.7	58.0

나. 도시 2인 이상 가구

2012년에 우리나라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에 속하는 인구 중 69.1%가 중위 소득계층에 포함된다. 1990년부터 중위소득계층에 포함되는 비율의 추이를 <그림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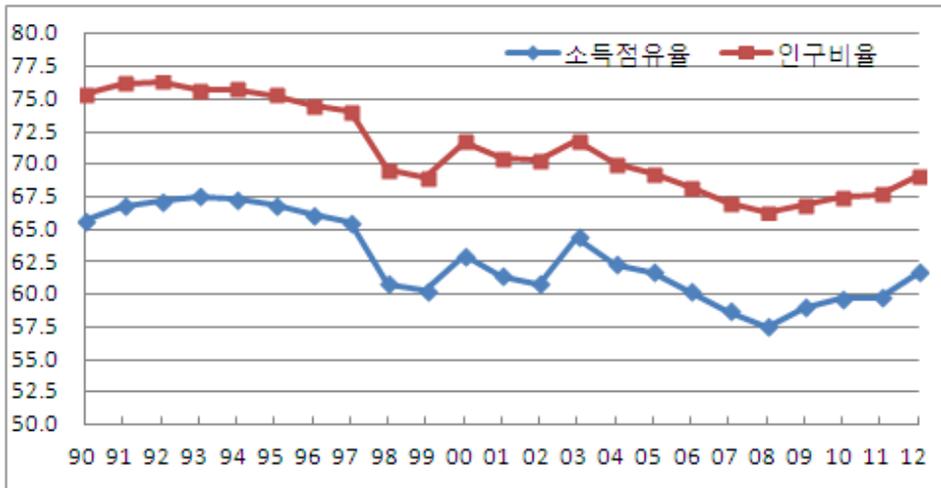


같이 비교해보면 1990년 75.4%에서 1992년 76.3%로 증가하였던 비율이 199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1997년보다 4.5%p 감소한 69.6%였고 1999년에는 68.9%까지 감소하였다. 2000년 71.7%, 2003년 71.8%로 잠시 증가했던 중위소득계층 비율은 2004년부터 다시 감소추이를 보여 2008년 66.3%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69.6%보다 더 중위소득계층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된 근로자들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로 전환이 고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시작한 세계 금융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되면서 2009년부터 다시 중위소득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2년 69.1%로 2005년 69.2%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위소득 계층에서 이탈한 개인들의 일부는 상위소득계층으로 이동하였으나 대부분 하위소득 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1>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중위소득계층 인구비율 추이

중위소득계층을 세분하여 각 계층의 인구비율을 보면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하위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은 16.2%~18.9%이고, 핵심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은 37.5%~47.0%이며, 상위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은 11.3%~13.5%로 전체가구기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핵심중위소득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1990년 이후 변동이 가장 많았다.



<그림2>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상대적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소득점유율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소득점유율 추이를 비교해보면 <그림2>와 같이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데 인구비율은 1992년 76.3%로 최고점에 도달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소득점유율은 1993년 67.5%를 최고점으로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8년 인구비율 66.3%, 소득점유율 57.5%로 최저점을 시현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인구비율 69.1%, 소득점유율 61.7%가 되었으며 인구비율과 소득점유율 차이는 1990년 9.7%p에서 2012년 7.4%p로 축소되었다.

3. 절대적 중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추이

가. 전체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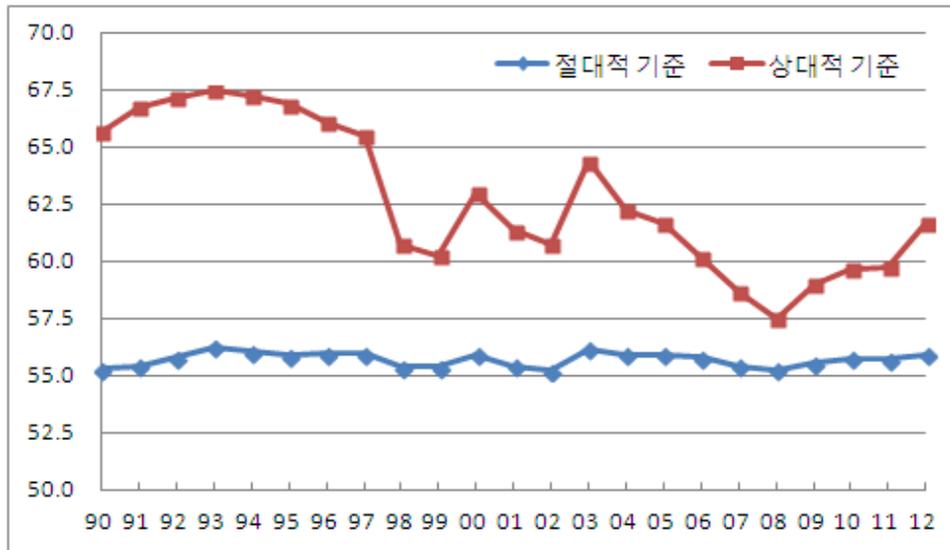
가장 낮은 개인소득에서 가장 높은 개인소득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0%씩 1개의 그룹을 만들 때 이를 소득 5분위라고 하는데 가장 소득이 낮은 20%의 인구로 만든 그룹을 소득1분위라고 하며 가장 소득이 높은 20%의 인구로 만든 그룹을 소득5분위라고 한다. 절대적 기준의 중위소득계층은 이들 그룹 중 소득2, 3, 4분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구비율은 항상 60%이다. 그러나 이들 절대적 기준 중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계산해보면 <표3>과 같이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55.0%~55.8%로 <표2>의 상대적 기준 중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55.0%~58.0%보다 안정적이지만 연도별 변동 추이는 동일하다.

〈표3〉 전체가구기준 절대적 중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단위 :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분위		7.0	6.8	6.7	6.6	6.7	6.6	6.8
중위소득계층		55.4	55.2	55.0	55.3	55.5	55.5	55.8
	2분위	13.4	13.2	13.3	13.2	13.5	13.4	13.5
	3분위	18.2	18.1	18.0	18.1	18.2	18.3	18.3
	4분위	23.9	23.9	23.8	23.9	23.8	23.7	24.0
5분위		37.6	38.0	38.3	38.1	37.8	37.9	37.5

나. 도시 2인 이상 가구

도시에서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점유율을 추계해보면 절대적 중위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은 상대적 중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과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동일한 추세를 보이지만 그 변동 폭은 서로 다르다. 이는 절대적 중위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55.3%~56.3%로 상대적 중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57.5%~67.5%보다 안정적인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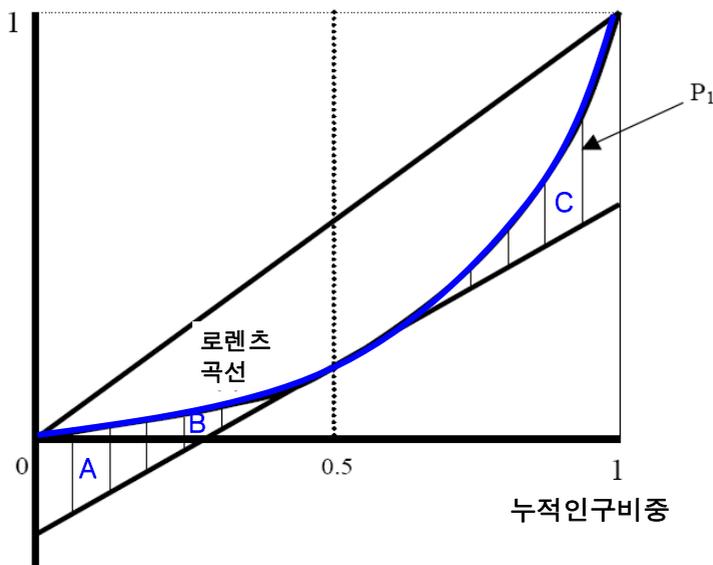
〈그림3〉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 중위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제2절 Wolfson지수 측정 및 추이 분석

1980년대 중반이후 선진국들에서 중위소득계층이 하위소득계층이나 상위소득계층으로 이동하여 중위소득계층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런 현상의 추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Wolfson이 지수를 고안하였다. 즉 중위소득계층을 중위소득부근의 인구계층으로 규정하고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정도가 클수록 중위소득계층이 감소한다고 규정하고 Wolfson은 로렌즈곡선을 이용하여 Wolfson지수를 도출하였다. <그림4>에서 중위소득(중위인구)에서 출발하는 수직선과 로렌즈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로렌즈곡선에 접선을 그으면 로렌즈곡선과 이 접선사이의 면적(=A+B+C)이 Wolfson지수를 의미하는데 이 면적이 클수록 중위소득계층이 감소하면서 Wolfson지수도 큰 값을 갖게 된다.

누적소득비중



<그림4> 로렌즈곡선에서 Wolfson지수

1. 전체가구

Wolfson지수 추계결과 전체가구기준으로 <표4>와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와 반복을 하던 지수는 2011년 감소 후 2012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위소득 계층의 비율이 감소할수록 Wolfson지수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야 하는데 중위소득계층

인구비율과 비교해보면 Wolfson지수 추이와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 추이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2007년과 2010년뿐으로 이는 시계열이 너무 짧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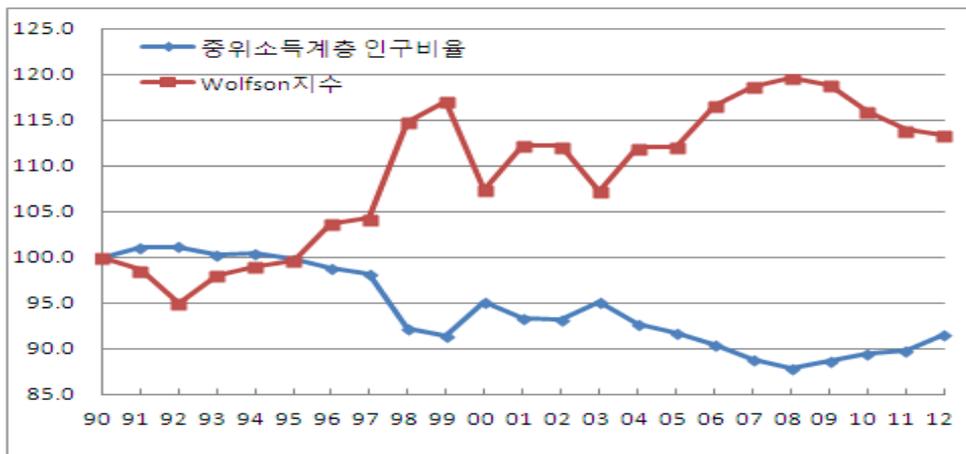
<표4> 전체가구기준 중위소득계층 인구비율과 Wolfson지수 추이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위소득 50%~150%	64.6	63.9	63.1	63.1	64.2	64.0	65.0
Wolfson지수	0.258	0.265	0.264	0.265	0.258	0.254	0.256

(단위 : %)

2. 도시 2인 이상 가구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Wolfson지수를 추계하여 1990년을 100.0으로 지수화하면 <그림5>와 같이 1990년에서 1992년까지 감소하던 Wolfson지수는 1993년부터 증가하였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과 2003년에 잠시 감소하였으나 2008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9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도 1990년을 100.0으로 지수화 하여 Wolfson지수 추이와 1990년부터 비교한 결과 추이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며 상관계수가 -0.983으로 두 지표 사이에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5>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Wolfson 지수 추이



3. 외국과 비교

LIS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중위소득계층의 비율과 Wolfson지수를 비교해보면 <표5>와 같이 덴마크의 중위소득계층 비율이 82.1%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64.8%로 LIS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40개 국가 중 21위로 중간 정도의 순위를 보이고 있고 호주, 영국, 미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중위소득계층의 비율이 낮다. 추계 결과 일반적으로 중위소득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Wolfson지수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5> 국가별 중위소득계층 비율 및 Wolfson지수

국가	덴마크 (2004)	노르웨이 (2004)	벨기에 (2000)	스위스 (2004)	한국 (2006)	영국 (2004)	미국 (2010)
중위소득 계층비율 (순위)	82.1 (1위)	79.8 (3위)	75.1 (6위)	73.6% (13위)	64.8 (21위)	59.8 (27위)	54.9 (29위)
Wolfson 지수	0.187	0.183	0.220	0.217	0.261	0.301	0.334

※() : 자료의 해당연도

※순위는 중위소득계층 비율 높은 수치(1위)에서 낮은 수치 순서

제4장 Wolfson지수와 소득분포 비교

제1절 Gini계수 추이 분석

1. 전체가구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지표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Gini계수¹⁰⁾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5월에 가계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OECD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균등화 소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Gini계수를 공식 발표하였고 그 이후 연 1회 Gini계수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여 전체가구 기준으로 Gini계수를 추계하면 <표6>과 같이 2006년 0.306이던 Gini계수는 세계 금융위기영향으로 2009년 0.314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2년 0.307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6> 전체가구기준 Gini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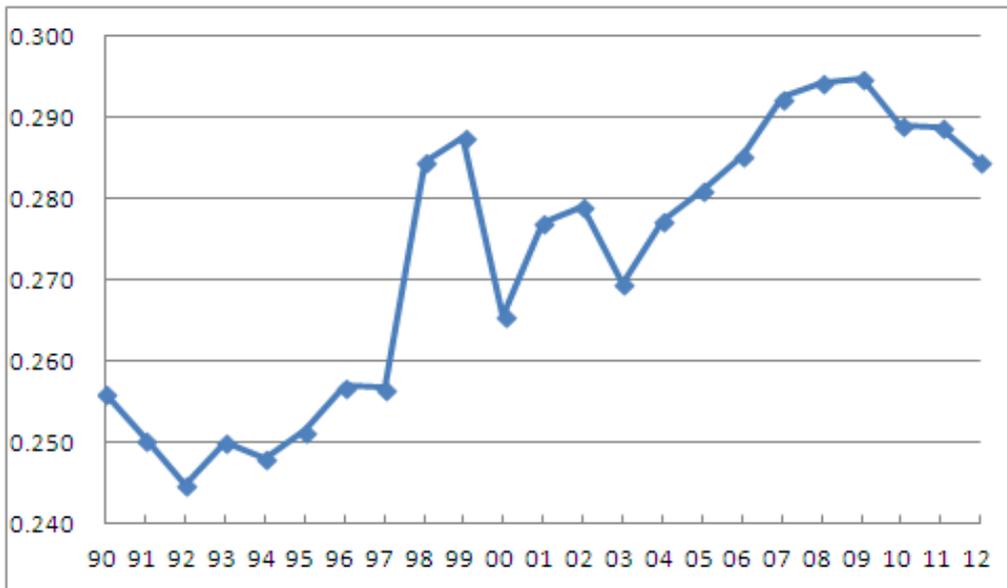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ini계수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2. 도시 2인 이상 가구

Gini계수의 장기 시계열추이 분석을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Gini계수 추이를 보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감소하던 Gini계수가 1993년부터 상승

10) Gini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추세를 보였고 1997년 외환위기로 1997년 0.257에서 1998년 0.285로 급상승하였다. 1999년 0.288까지 상승하던 Gini계수는 2000년 0.266으로 급하락 한 후 2009년 0.295까지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여 2012년 0.285로 외환위기의 영향이 반영된 1998년 또는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과 유사한 소득불평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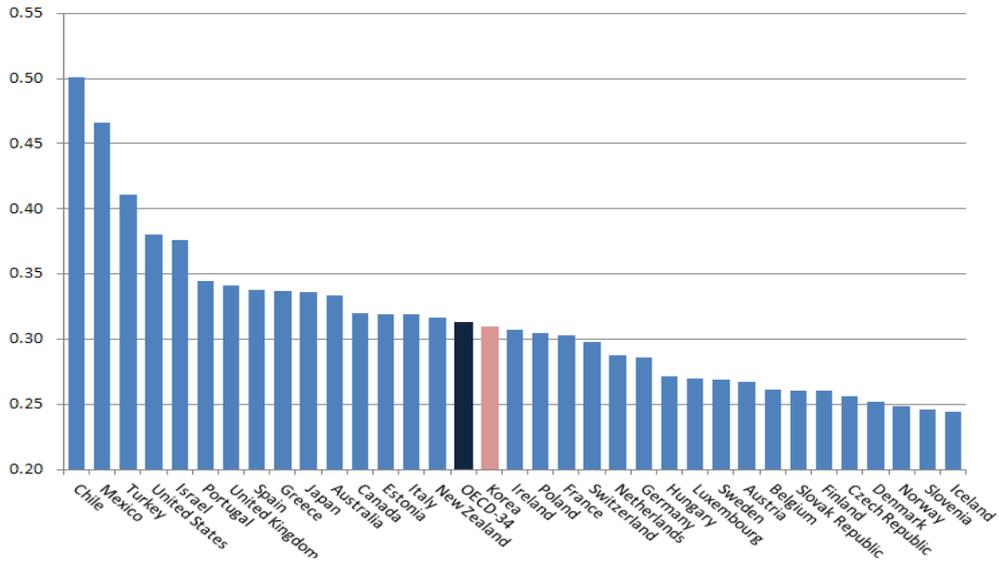


〈그림6〉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지니계수 추이

3. 외국과 비교

OECD가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Gini계수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ini계수는 0.310으로 OECD 34개국 중 16번¹¹⁾째로 OECD 평균 0.313보다 낮은 수준이며 LIS자료를 이용하여 Wolfson지수를 계산한 결과와 비슷하게 영국(0.341), 미국(0.380), 호주(0.334) 등의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적다.

11) OECD국가의 순위는 1위(높은 수치) → 34위(낮은 수치)를 의미



〈그림7〉 OECD 국가별 Gini계수 (2010년 기준)

출처: OECD Statistics(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제2절 기타 소득분포 추이 분석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Gini계수 외에 Atkinson¹²⁾, Theil¹³⁾, SCV¹⁴⁾, ML D¹⁵⁾ 등의 지표가 있다.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이들의 추세도 Gini계수와 동일하게 2009년 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감소하였고 2011년 다시 증가하다 2012년 감소하여 2006년과 유사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12) Atkinson은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과의 차이로 소득불평등을 측정

*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 균등분배의 전제하에 현재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균소득으로 주관적으로 판단

13) Theil은 각 구성원의 소득을 모집단의 평균소득과 비교로 소득불평등을 측정

14) SCV는 소득의 변동성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측정

15) MLD는 가구소득이 일반적으로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므로 소득을 자연대수로 전환하여 편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득불평등을 측정

〈표7〉 전체가구기준 소득불평등도 관련 지표별 추이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ini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Atkinson ($\epsilon=0.25$)	0.040	0.042	0.043	0.043	0.042	0.042	0.041
Atkinson ($\epsilon=0.5$)	0.082	0.086	0.087	0.088	0.086	0.087	0.084
Atkinson ($\epsilon=0.75$)	0.130	0.137	0.140	0.142	0.138	0.139	0.133
Theil	0.158	0.165	0.168	0.169	0.165	0.168	0.161
SCV	0.346	0.363	0.371	0.377	0.375	0.417	0.351
MLD	0.190	0.201	0.205	0.209	0.204	0.205	0.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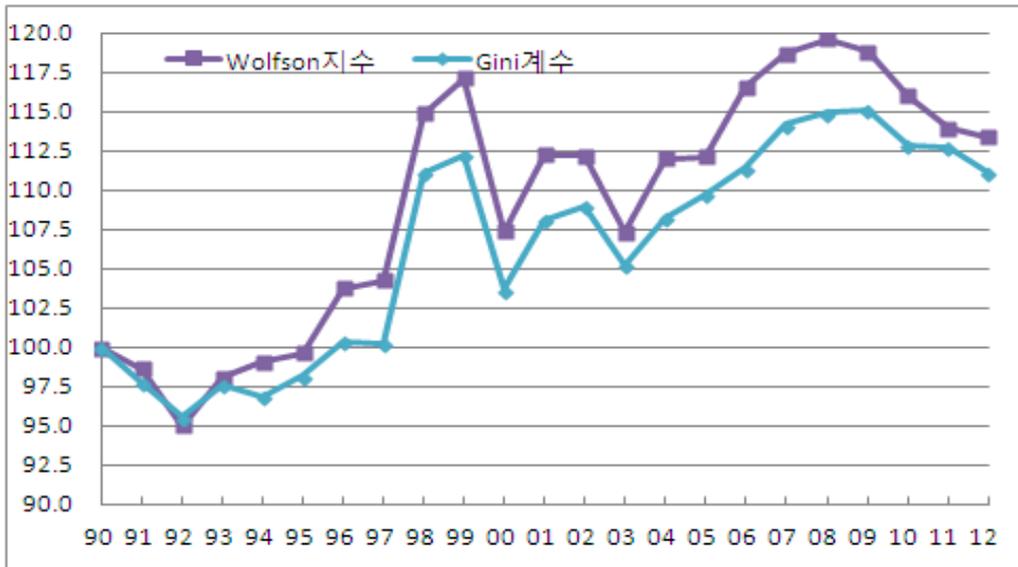
제3절 Wolfson지수와 Gini계수 비교

본 연구에서 추정한 전체가구기준 Wolfson지수와 Gini계수를 비교하면 상관계수가 0.692이며, 2008년, 2011년, 2012년 서로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8〉 전체가구기준 Wolfson지수와 Gini계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Wolfson 지수	0.258	0.265	0.264	0.265	0.258	0.254	0.256
Gini 계수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그러나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Wolfson지수와 Gini계수의 상관계수는 0.987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0년을 100.0으로 Wolfson지수와 Gini계수의 각 연도별 수치를 지수화한 <그림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3년까지는 Wolfson지수의 변동 폭과 Gini계수의 변동 폭이 동일했다가 1994년부터 Wolfson지수의 변동 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이지만 추세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8〉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Wolfson지수와 Gini계수 추이

위 전체가구 기준과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의 Wolfson지수와 Gini계수와의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는 두 자료의 성격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 가구기준 통계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며,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은 가계동향조사 자료 중 도시에 거주하며 가구원이 2인 이상 가구의 자료만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즉 전체가구기준은 농촌지역, 1인 가구 등의 포함으로 도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Wolfson지수와 Gini계수 추이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제5장 결 론

본고는 다양하게 정의되는 중산층을 단지 소득만을 고려하여 전체가구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중위소득계층 추이를 분석하였다. 추이 분석을 위해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소득점유율 및 Wolfson지수를 추계하였고, 중위소득계층의 추이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Wolfson지수와 Gini계수와 추이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전체가구기준으로 2007년 세계 금융위기로 2006년에 비해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소득점유율, Wolfson지수, Gini계수 등 모두 지표가 악화되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2006년 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으로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기시계열 추이를 분석해보면 지표들은 1992년 또는 1993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위기로 1998년에 큰 폭으로 지표들의 변동이 심화되었다. 2000년과 2003년에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악화되다가 세계 금융위기로 2008년 지표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인 후 개선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2006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계층별 인구는 핵심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가장 많으며, 상위소득계층(중위소득 150% 이상)의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하위중위소득계층(중위소득의 50%~75%), 하위소득계층, 상위중위소득계층의 순서로 상위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가장 적다.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은 2012년 전체가구기준으로 65.0%이지만, 이들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58.0%이다.

넷째, 외국과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중위소득계층 비율, Wolfson지수, Gini계수 모두 비교 국가들 사이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며, 미국, 영국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정도가 양호하다.

다섯째, Wolfson지수와 Gini계수는 전체가구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추이가 서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도시 2인 이상 가구기준으로 1990년부터 2012년까지의 추세는 동일하다. 이는 이용하는 자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향후 이 차이에 대한 각 특성별 기여정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Wolfson지수와 Gini계수의 추세는 일치해도 변동 폭은 1994년부터 일치하지 않는데 Wolfson지수의 변동 폭이 Gini계수의 변동 폭보다 크다.

본고는 중산층을 소득기준으로만 그 추이를 분석하였지만 향후 소득뿐만 아니라 의식, 자산, 학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중산층 지표를 개발하여 그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진 외 (2010).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25-05
- 김용기 외 (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 김용성 (2006). 『소득분배 양극화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남상호, 임병인 (2008).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 및 양극화 분석』. 경제학연구 제56집 제1호, 219-247
- 민승규 외 (2006).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 신동균 (2007).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학연구 제55집 제4호, 503-548
-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 이정우, 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 1997년 위기 이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학연구 제7권 제2호, 79-109
- 최희갑 (2001).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2호, 1-20.

부 록

<통계표: 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

A-1. 소득계층별 인구비율 및 Wolfson지수(전체가구)

(단위: %)

	인구비율						Wolfson 지수
	중위소득 50%미만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150%이상	
		50%~75%	75%~125%	125%~150%			
2006	14.3	64.6	16.5	35.9	12.3	21.0	0.258
2007	14.8	63.9	16.2	35.6	12.1	21.3	0.265
2008	15.2	63.1	15.6	35.8	11.7	21.7	0.264
2009	15.3	63.1	16.2	35.1	11.8	21.6	0.265
2010	14.9	64.2	15.8	36.3	12.1	20.9	0.258
2011	15.2	64.0	15.5	36.8	11.7	20.8	0.254
2012	14.6	65.0	16.1	36.6	12.3	20.3	0.256

A-2. 소득계층별 인구비율 및 Wolfson지수(도시 2인 이상 가구)

(단위: %)

	인구비율						Wolfson 지수
	중위소득 50%미만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150%이상	
		50%~75%	75%~125%	125%~150%			
1990	7.1	75.4	18.0	45.3	12.1	17.5	0.208
1991	6.8	76.2	17.6	45.9	12.8	16.9	0.205
1992	6.5	76.3	17.9	47.0	11.5	17.1	0.197
1993	7.5	75.7	17.9	45.2	12.5	16.8	0.204
1994	7.3	75.8	18.1	44.5	13.1	16.9	0.206
1995	7.7	75.3	18.2	44.8	12.3	16.9	0.207
1996	8.2	74.5	18.9	42.2	13.5	17.2	0.216
1997	8.2	74.1	18.8	42.3	12.9	17.8	0.217
1998	10.9	69.6	18.2	38.9	12.5	19.5	0.239
1999	11.4	68.9	18.7	37.7	12.6	19.6	0.243
2000	9.2	71.7	17.5	41.9	12.3	19.0	0.223
2001	10.1	70.4	18.4	39.8	12.3	19.5	0.233
2002	10.0	70.3	17.5	40.5	12.3	19.8	0.233
2003	10.6	71.8	17.2	41.7	12.9	17.6	0.223
2004	11.4	70.0	17.6	39.5	12.9	18.6	0.233
2005	11.9	69.2	16.7	39.7	12.9	18.9	0.233
2006	11.9	68.3	17.8	38.1	12.4	19.8	0.242
2007	12.6	67.0	16.8	38.3	12.0	20.4	0.247
2008	12.5	66.3	16.5	38.5	11.3	21.2	0.249
2009	13.1	66.9	17.3	37.5	12.0	20.0	0.247
2010	12.5	67.5	16.3	38.9	12.3	20.0	0.241
2011	12.4	67.7	16.2	39.8	11.7	19.9	0.237
2012	12.1	69.1	17.1	38.7	13.3	18.8	0.236

B-1.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전체가구)

(단위: %)

	중위소득 50%미만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150%이상	
		50%~75%	75%~125%	125%~150%		
2006	4.2	56.9	9.4	32.2	15.2	39.0
2007	4.2	55.9	9.2	31.7	14.9	39.9
2008	4.3	55.0	8.9	31.7	14.3	40.7
2009	4.3	55.4	9.3	31.5	14.6	40.3
2010	4.1	56.7	9.1	32.7	14.9	39.1
2011	4.2	56.7	8.9	33.4	14.5	39.0
2012	4.1	58.0	9.3	33.2	15.4	37.9

B-2.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도시 2인 이상 가구)

(단위: %)

	중위소득 50%미만	중위소득 50%~150%			중위소득 150%이상	
		50%~75%	75%~125%	125%~150%		
1990	2.4	65.7	10.4	40.4	14.9	31.9
1991	2.4	66.8	10.2	40.7	15.9	30.8
1992	2.2	67.2	10.5	42.4	14.3	30.6
1993	2.4	67.5	10.5	41.2	15.8	30.1
1994	2.4	67.3	10.7	40.2	16.4	30.3
1995	2.6	66.9	10.8	40.7	15.4	30.5
1996	2.8	66.1	11.1	38.1	16.9	31.1
1997	2.7	65.5	11.0	38.2	16.2	31.8
1998	3.3	60.8	10.5	34.8	15.4	35.9
1999	3.5	60.3	10.7	33.9	15.7	36.2
2000	2.9	63.0	10.1	37.5	15.3	34.0
2001	3.2	61.4	10.6	35.5	15.2	35.4
2002	3.1	60.8	9.9	35.7	15.2	36.1
2003	3.4	64.4	10.0	38.2	16.3	32.2
2004	3.6	62.3	10.3	36.0	16.1	34.0
2005	3.7	61.7	9.7	35.9	16.1	34.6
2006	3.7	60.2	10.3	34.5	15.5	36.1
2007	3.8	58.7	9.6	34.3	14.8	37.5
2008	3.8	57.5	9.5	34.1	13.9	38.7
2009	3.9	59.0	10.0	34.0	15.0	37.0
2010	3.7	59.7	9.4	35.0	15.3	36.6
2011	3.7	59.8	9.3	36.0	14.5	36.5
2012	3.6	61.7	10.0	35.1	16.7	34.6

C-1.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전체가구)

(단위: %)

	1분위	2~4분위			5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2006	7.0	55.4	13.4	18.2	23.9	37.6
2007	6.8	55.2	13.2	18.1	23.9	38.0
2008	6.7	55.0	13.3	18.0	23.8	38.3
2009	6.6	55.3	13.2	18.1	23.9	38.1
2010	6.7	55.5	13.5	18.2	23.8	37.8
2011	6.6	55.5	13.4	18.3	23.7	37.9
2012	6.8	55.8	13.5	18.3	24.0	37.5

C-2.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도시 2인 이상 가구)

(단위: %)

	1분위	2~4분위			5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1990	9.5	55.3	14.5	18.1	22.7	35.2
1991	9.7	55.4	14.5	18.2	22.8	34.8
1992	9.8	55.8	14.8	18.3	22.7	34.4
1993	9.3	56.3	14.7	18.5	23.1	34.4
1994	9.5	56.1	14.7	18.4	23.0	34.4
1995	9.4	55.9	14.6	18.4	23.0	34.7
1996	9.2	56.0	14.3	18.4	23.3	34.8
1997	9.2	56.0	14.4	18.4	23.3	34.8
1998	8.0	55.4	13.8	18.2	23.4	36.6
1999	7.9	55.4	13.6	18.2	23.6	36.7
2000	8.7	55.9	14.3	18.3	23.4	35.3
2001	8.4	55.5	13.9	18.1	23.4	36.1
2002	8.4	55.3	14.0	18.0	23.3	36.4
2003	8.4	56.2	14.3	18.5	23.4	35.4
2004	8.1	55.9	14.0	18.4	23.5	35.9
2005	7.9	55.9	14.0	18.4	23.5	36.1
2006	7.9	55.8	13.8	18.3	23.8	36.3
2007	7.6	55.4	13.7	18.2	23.6	36.9
2008	7.6	55.3	13.6	18.1	23.6	37.1
2009	7.4	55.6	13.6	18.3	23.7	37.0
2010	7.6	55.8	13.9	18.3	23.6	36.6
2011	7.6	55.7	13.9	18.3	23.5	36.7
2012	7.8	56.0	13.9	18.4	23.6	36.3

D-1. 소득불평등도 관련 지표들(전체가구)

	Gini 계수	Atkinson			Theil 지수	SCV	MLD
		($\epsilon=0.25$)	($\epsilon=0.5$)	($\epsilon=0.75$)			
2006	0.306	0.040	0.082	0.130	0.158	0.346	0.190
2007	0.312	0.042	0.086	0.137	0.165	0.363	0.201
2008	0.314	0.043	0.087	0.140	0.168	0.371	0.205
2009	0.314	0.043	0.088	0.142	0.169	0.377	0.209
2010	0.310	0.042	0.086	0.138	0.165	0.375	0.204
2011	0.311	0.042	0.087	0.139	0.168	0.417	0.205
2012	0.307	0.041	0.084	0.133	0.161	0.351	0.197

D-3. 소득불평등도 관련 지표들(도시 2인 이상 가구)

	Gini 계수	Atkinson			Theil 지수	SCV	MLD
		($\epsilon=0.25$)	($\epsilon=0.5$)	($\epsilon=0.75$)			
1990	0.256	0.028	0.055	0.084	0.112	0.256	0.117
1991	0.250	0.026	0.052	0.079	0.107	0.249	0.110
1992	0.245	0.025	0.050	0.076	0.101	0.226	0.107
1993	0.250	0.027	0.054	0.087	0.106	0.227	0.122
1994	0.248	0.026	0.052	0.079	0.103	0.226	0.112
1995	0.251	0.026	0.053	0.081	0.106	0.232	0.114
1996	0.257	0.027	0.055	0.084	0.110	0.238	0.120
1997	0.257	0.027	0.055	0.085	0.110	0.239	0.120
1998	0.285	0.034	0.070	0.110	0.136	0.291	0.158
1999	0.288	0.035	0.071	0.110	0.138	0.301	0.160
2000	0.266	0.029	0.060	0.093	0.117	0.248	0.133
2001	0.277	0.032	0.065	0.101	0.128	0.280	0.144
2002	0.279	0.033	0.066	0.101	0.130	0.285	0.145
2003	0.270	0.031	0.062	0.097	0.122	0.261	0.139
2004	0.277	0.032	0.065	0.101	0.128	0.274	0.145
2005	0.281	0.034	0.069	0.108	0.134	0.293	0.155
2006	0.285	0.034	0.070	0.109	0.136	0.295	0.158
2007	0.292	0.036	0.074	0.117	0.144	0.313	0.168
2008	0.294	0.037	0.075	0.119	0.146	0.318	0.172
2009	0.295	0.037	0.076	0.120	0.146	0.312	0.176
2010	0.289	0.036	0.073	0.116	0.140	0.293	0.170
2011	0.289	0.036	0.073	0.115	0.141	0.302	0.167
2012	0.285	0.035	0.071	0.112	0.136	0.290	0.162

◆ **집필진**

- 박소현(통계청 복지통계과 사무관)
- 안영민(통계청 복지통계과 주무관)
- 정규승(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사무관)

「중산층 측정 및 추이분석」 연구보고서

- | | |
|---------|---------------------------------------------------------------------------------------------------------|
| ■ 발행연월일 | 2013년 12월 30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최 연 옥 |
| ■ 발 행 처 | 통계개발원
3002-280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월평동 282-1) 통계센터 6~8F
☎ 대표 (042) 366-7100 Fax (042) 366-7123 |
| ■ 인 쇄 처 | 강문인쇄사 (042) 226-4722~3 |